

월요광장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무술년, 또 한 해가 밝았다. 이 때면 누구나 한 해의 운수 대통을 기원한다. 그런데 열심히 기원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계획도 도전도 없이 우연한 요행을 바라는 기원이란 본래 그렇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냥 앉아서 행운을 기다리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 아무런 준비도 인내도 없이 운수 대통을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모습이란 얼마나 예소하고 민망한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어니스트 헤밍웨이(1899-1961)는 한 노인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 노인은 고기를 잡지 못한 채 84일을 보냈다.” 이렇게 시작하는 ‘노인과 바다’는 산티아고라는 노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다. 산티아고 노인은 작은 배를 타고 멕시코 만에서 혼자서 고기를 잡는 어부다. 처음에는 노인과 함께 배를 타던 소년이 있었지만 고기를 못 잡고 허탕을 치는 날이 40일 째가 되자 고기를 잘 잡는 다른 배로 옮겨 갔다. 소년의 부모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렇게 한 것이다. 노인의 운이 완전히 바뀔 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년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노인에게 남은 것은 불운 중에서도 최악의 불운이라고 수군댔다.

하지만 혼자 남은 노인은 자신의 작은 배를 가지고 고기잡이를 계속한다. 운이 없는 것만이 아니다. 노인은 나이조차 많았다. 바다를 구석구석 잘 아는 경험과 노련함에도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살은 숨길 수 없다. 그럼에도 노인은 깊고 강렬한 눈빛으로 고기 잡는 일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음을 보여 준다. 84일간 허탕만 쳤다한들 그 다음날도 빈손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삶의 신비를 미리 아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노인은 누구보다도 ‘낯익음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지 않은가. 고기 잡는 사람은 운수를 기다리는 것보다 ‘낯익음을 제대로 드러워 놓는 게’ 우선이다. 노인은 84일을 허탕치고 묵묵히 다시 바다로 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5.5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청새치를 낚는다. 바다에 나간 지 85번째 날이다.

그런데 고난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엄청난 무게를 가진 청새치와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한다. 청새치는 노인이 3일간이나 끌고 다니다가 지쳐서야 자신의 생명을 내준다.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얻는 일은 마지막 순간이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인가. 하지만 거대한 청새치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노인의 희

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번에는 청새치의 피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상어 떼와 싸워야 한다. 노인은 상어와 사투를 벌이지만 청새치는 살점이 다 뜯겨 나가고 앙상하고 거대한 하얀 등뼈와 꼬리만 남았다. 그러나 노인은 절망은 커녕 실망조차 하지 않는다. 상어 떼 같은 파괴자들이 어디 바다에만 있는가. 삶에는 느닷없이 덤벼드는 상어 떼가 늘 있기 마련이다.

‘노인과 바다’는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헤밍웨이가 쓴 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이야기로 꼽힌다. 작가는 이 작품으로 풀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노인과 바다’는 한 노인이 힘들게 잡은 거대한 청새치를 상어 떼에게 빼앗기고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줄거리다, 사실 놀람도 딱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다. 재미나는 갈등 관계도 화려한 수식어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일까?

노인은 바다 위에서 목숨을 건, 두 번의 싸움을 한다. 첫 상대는 청새치고 다음에는 상어다. 노인은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서 무려 84일 동안을 기다린다. 노인이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바로 이 길고 긴 기다림이다. 또한 굶지 않는 의지와 자신에 대한 굳은 믿음이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노인은 자신에게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을 뿐이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마침내 ‘행성 뜬도 보도 못한 거대한

아름다운 청새치와의 목숨 건 싸움을 통과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하지만 다시 또 한 번의 싸움을, 상어와 싸움을 치러야 한다. 이번에는 청새치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노인은 상어들과 싸워 봤자 청새치 원래의 모습 대신에 등뼈만 남는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청새치의 일부를 내주면서 일부를 챙기는 타협보다는 상어 떼와의 정면 승부를 택한다.

그리고 노인은 말한다. “인간은 파멸 당할지언정 결코 패배하지 않아”라고 말이다. 이 한마디에서 노인이 왜 그토록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였는가를 알게 된다. 비로소 노인이 왜 그렇게 끈질기게 싸웠으며 도전을 멈추지 않았는지를 이해한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증명하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싸운 뒤에는 그 결과가 허망하거나 빈손이라고 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과의 문제라 아니라 어떻게 싸웠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인은 늘 준비하고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았다.

노인은 깊고 곤한 잠을 잔 후에 다시 바다로 나갈 것이다. “언제나 매번 새로 처음 하는 일이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과거를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말이다. 해가 바뀔 때마다 있어서 ‘거대한 청새치’ 같은 운수를 꿈꾸는 대신에 각자의 바다로 나가서 정확하게 ‘낯익음’을 드러내고, 의지와 끈기를 가다듬는 것이 더 값진 일이 아닐까.

법조칼럼



박 철  
법무법인 법가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청년특위 위원장

한 해가 시작됐다. 매년 맞이하는 새해지만, 매년 새 꿈을 꾸게 한다. 특히 새해 1일은 불과 하루 전, 12월 31일과는 다른 마음을 먹는 것이 신기하다. 1월 1일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으로 1년을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적도 있다. 매일을 초심(初心)처럼 산다면 말이다.

나는 불혹이 거의 다 돼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다.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처음 법정에 서는 날 얼마나 떨리던지, 법정 나가는 것이 긴장되고 떨린다고

초심(初心)

은 법원에 계신 여든이 다 되신 노(老) 변호사님께 푸념을 했던 적이 있다. 그랬더니 ‘아이 사람이! 나도 아직 떨리는데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시며 허허 웃으셨다.

이분이 팔순의 연세가 되도록 변호사 생활을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긴장감의 유지, 즉 처음과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겠구나 싶었다.

이제 법정도, 검·경 등 수사기관도 익숙해져 출정이나 출석에 처음만큼 긴장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업무를 하면서 항상 직접 의뢰인을 상담하러하고, 기록을 꼼꼼히 읽고 재판이나 서면을 준비하는 것은 변호사 선배가 선문답처럼 깨우쳐 주신 롱런(long run)의 비밀 때문이다.

비단 변호사라는 직업이나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흔히 긴장 없는 반복적 일상을 경계할 없이 살아가곤 한다.

새해부터 공부나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학생,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생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겠다고 하는 부모,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무원,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치인, 모두 처음 그 신분이 되었을 때나 새 업무 연도가 시작되었을 때 먹었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대체로 나태함에 기인하지만, 욕심에 눈이 가려 지는데 이유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나태함에 의한 피해야 개인의 손해로 끝날 터이지만, 욕심에 초심이 흔들리면 주변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 특히 공익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실수에 빠지게 되면 그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어진다.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때로는 정도(正道) 이상으로 이익(利益)에 치우친 적은 없지 않 반성해 본다.

처음 변호사가 되었을 때 자랑스럽게 되뇌던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 윤리 선언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돌아본다. 그

리고 올 한 해 변호사의 사명을 잘 지켜 나갔다고 다짐해 본다.

올해는 지방선거, 개헌(改憲) 문제 등 굵직한 정치 이슈가 꽤 많다. 어쩌면 많은 정치인들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국민만 보고 가겠다면 초심이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경계하게 될지도 모른다.

부디 순간의 개인적인 영달이 아닌, 통련하는 방법을 택하길 바랄 뿐이다. 또 정부와 여당, 대통령은 정권을 창출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겠다고 단 심수를 빼지 말고 민생에 정책 초점을 맞춰주길 기대한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라는 꽤나 유명한 명언이 있다. 처음 시작할 때가 됐던 바른 마음가짐과 희망을 간절하게 하루하루 쌓아가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해 본다.

광주일보 독자 여러분도 하루하루가 새해 첫날과 같이 항상 희망찬기를 기원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 고



문 병 재  
광주시 환경정책과장

화학 물질은 인체나 환경·생태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선진국처럼 우리 정부나 지자체도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사람 중심 생명 존중’ 민선 6기 시정 철학에 따라 2016년 3월 ‘광주시 화학 물질 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화학 물질 안전 관리 위원회’ 구성 및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기본계획’ 수립·추진하는 등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광주시 내 화학 물질 사용 사업장 24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DB화하고,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유해 화학 물질 사업업체 분포도를 제작하여 누구나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화학 사고 ‘제로(0)’를 꿈꾸며

그리고 산업단지외 주변 지역 유해 대기 오염 물질을 보다 폭넓게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난해 분석 장비를 3대에서 11대로 늘려 하남동 주민센터 등 5개소에서 트리플로로에틸렌(TCE)과 벤젠, 톨루엔 등 43개 항목에 대해 연중 측정하고 있다. 또 하남산단의 유해 화학 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광산소방서 부지 내에 국가 유해 대기 물질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 사고와 다수의 민원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하남산단 내에 환경사고 예방 감시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더불어 풍영정천 수질 오염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남공단 완충 저류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국비)를 확보했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여 2021년도에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3월에 화학 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하남산단 소재 A업체의 형광등 생산설비 철거 과정에서 배관에 잔류된 수은이 지하실 바다 및 대기에 누출돼 철거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집단으로 수은에 중독되는 피해를 입었다. 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폐수는 및 오염도양을 제거하는 등 긴급 방제 조치하

고 근로자 전원에 대해 건강 검진을 실시했고, 산업 재해 요양 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 및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2016년 7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의 PRTR(화학 물질 배출·이동량) 결과를 보고, 시민단체로부터 B업체가 발암 물질인 TCE를 과다 배출하였다는 지적이 일자, 광주시는 곧바로 학계, 노동계, 환경단체, 의회, 주민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발족시켰다.

이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 조사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함에 따라 배출구 TCE 농도가 2016년 8월 81.5ppm에서 현재는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9일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지방 환경청장 국정감사에서 “기업과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으로 발암물질을 저감시킨 모범 사례”로 타 시·도에 전파해 사고 발생시 교본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해 광산구 풍영정천 등에서 8건의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그 중 6건이 화학 물질 유출

로 인한 사고로 판명됐고, 사고의 대부분은 기업이 고의로 폐유, 중금속 폐수 등 화학 물질이 포함된 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이었다. 이 사고로 하천의 물고기까지 다량 폐사했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지방경찰청, 광주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원인을 찾아 무단 방류 업체를 적발, 고발과 함께 행정 처분한 바 있다.

사고가 나면, 수·생태계 파손 등 지연 환경 훼손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행정·재정적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 화학 사고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행히도 지난 9월 이후로는 화학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있을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화학사고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해 화학 물질의 올바른 취급요령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무단 방류 같은 기업가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시민은 화학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자가 되는 등 민·관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다.

社 說

문화전당장 공석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초대 수장을 선임하기 위한 다섯 번째 전당장 공모도 결국 무산됐다. 여기에 광주 문화수도 조성의 컨트롤 타워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문화전당 운영을 맡은 아시아문화원장의 공석도 장기화하고 있어 심각한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문화전당장 5차 공모에서도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고 과열된 지역 여론을 감안해 선임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문화전당은 당분간 방산업 전당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9월부터 5차 공모를 진행한 인사혁신처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3명의 후보를 문체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서류 전형조차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후보자 압축결과 내정선이 나뉘더니 5월 단계와 예술인 단계들이 특정 인사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거나 지지 선언을 하는 등 갈등을 빚으면서 분

위기가 과열되었다.

문체부는 이런 상황에서 전당장을 선임하면 갈등과 혼란이 커질 수 있고 전당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화전당 정상화와 옛 전남도청 복원 등 산적인 현안을 풀어야 할 정도로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했는데 선임 자체가 또다시 좌초됐기 때문이다.

공모가 무산된 배경에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당장 선임을 놓고 특정 세력과 진영이 지나칠 정도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관 2년이 넘도록 초대 수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 기관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사령탑 공백이 장기화하면 조직 불안정으로 운영 차질은 물론 콘텐츠 부실도 이어질 수 있다. 문체부는 조속히 공모 절차를 다시 밟아 문화전당이 ‘문화 발전소’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것이다.

최저임금·시급 인상 충격 완화하려면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부터 7530원(시급)으로 16.4%나 뛰었다. 이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진정한 경제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성장과 함께 반드시 ‘격차 해소’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다.

그동안 국가의 경제력과 국민소득은 점진적으로 향상됐지만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은 별반 나아진 게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실질 생활에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임금 상승으로 소득 격차가 완화되면 소비가 증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려되어 왔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산업 현장에서는 임금 상승분을 만회하기 위한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군·자치단체 ‘직장 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56건의 임금 인상에 따른 편법

사례가 제보됐다고 한다. 2~3개월마다 주던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비껴 가는가 하면 기존 수당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근무 인원을 줄이거나 각종 이유를 들어 근무 일수나 시간을 단축하려는 곳도 많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막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물가 안정 방안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경비원들의 임금 상승분을 세대별로 단 돈 몇 천 원씩 더 내서 고용을 안정시킨 일부 아파트에서의 사례처럼 국민 모두가 조금씩 부담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도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적극 이용하는 등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어린 시절 감명 깊게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플랜더스의 개’라는 동화다.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 인근 마을을 배경으로 한 소년과 개의 아름다운 우정에 관한 이야기다.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와 사는 네로라는 소년은 버림받은 파트라슈라는 개를 만난다. 인정이 많은 네로는 개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산다. 둘은 매일 아침 우유 수레를 끌며 화가가 꿈이었던 네로는 틈틈이 그림을 그린다. 동네 친구인 알루아즈라는 ‘플랜더스의 개(契)’를 소개하며 점차 열정을 키워 나간다. 그러나 알루아즈의 아버지 코제트는 딸이 가난한 네로와 어울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부호였던 코제트는 네로를 마을에서 내쫓기 위해 모함을 꾸미고, 결국 네로는 마을을 떠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네로는 할아버지를 여의는 아픔까지 겪는다.

어느 겨울 밤, 네로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안트베르펜 대성당 안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루벤스의 그림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튿날 네로는 파트라슈와 함께 그림 앞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다.

‘플랜(plan) 다스의 계(契)’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재산파괴기운동본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다스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시작된 ‘150억 모금 프로젝트’다. 시인들은 다스 주식 1만주(3.39%)를 살 계획이라고 하는데 “다스는 누구 것일까?”라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다. 상법에 의하면 3% 이상 지분을 소유한 소액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 요구와 회계장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플랜더스의 개’와 ‘플랜 다스의 계’는 묘한 느낌을 준다. 동화 속 네로의 할아버지 이름이 ‘다스’라는 사실은 우연치고는 흥미로운 대목이다. 공교롭게도 올해는 개띠 해다. ‘플랜더스의 개’와 ‘플랜 다스의 계’는 발음의 유사성 외에 두 경우 모두 개의 특징인 ‘외로움’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이다.

저장거리에선 ‘다스는 MB 것’이라는 말이 퍼져 나간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애써 무시한다. 점점 ‘벌거벗은 임금님’ 꼴이 되어 가는 전직 대통령의 처지가 안타깝다.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지.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b>光 州 日 報</b>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